

# ‘모성’의 확장과 재사유\*

— TV드라마 <마더>를 중심으로

김미라\*\*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미디어의 ‘모성’ 재현에 관한 기존 연구 및 논의
3. 모성신화의 해체, 그리고 ‘모성’ 연대의 가능성
  - 3.1. 혈연을 뛰어넘는 ‘모성’의 확장과 실천
  - 3.2.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의 이분법적 서사 파기
  - 3.3. 성별 구분을 넘어선 ‘모성’의 실천
  - 3.4. 약자를 구원하는 ‘모성’ 연대와 힘
4. 맺음말: ‘모성’의 확장과 재사유

## 〈국문초록〉

가부장제가 견고한 사회에서 미디어는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자 절대적 가치로, 자신의 사회적 성취보다는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이상적이라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가 선호하는 ‘정상가족’의 범주를 이탈한 미혼모나 이혼녀,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여성성’이 결핍된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자녀의 양육 책임을 어머니한테만 돌림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데 공모했다. 그런데 최근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균열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모성’ 담론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아동 학대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혀 다른 ‘모성 실천’을 재현한 TV드라마 <마더>의 서사분석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드라마 <마더>는 친모와 그 동거남의 학대로 위기에 놓인 아동을 구출해 엄마가 되는 비혼모, 혈연관계가 없는 세 딸을 입양해 차별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없이 키워내는 입양모의 이야기를 통해 혈연을 뛰어넘는 다양한 모성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의 이분법적 재현방식에서 벗어나 남편의 폭력으로 살인자가 돼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고 새로 만난 동거남과의 이별이 두려워 딸에 대한 학대를 방관하는 미혼모 등 자식을 방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과 고통에 주목함으로써 무조건적인 회생을 강요했던 기존의 ‘모성’신화를 해체한다. 그리고 <마더>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여덟 살 아이를 구출해 끝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비혼여성과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끈끈한 엄마들의 연대를 통해 가족관계에 한정됐던 ‘모성’을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 관계지향성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모성에 대한 재사유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동학대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모성’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TV 드라마, 모성 이데올로기, 서사 분석, 여성주의

## 1. 들어가는 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제가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모성’은 여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능으로, 여성의 가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담론이었다. 미국 사회는 호국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종전 이후 가사활동의 영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되며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표현이 현모양처의 이상과 모성에 실천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겪었다.<sup>1)</sup> 우리 사회 역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주의 파시즘의 영향으로 공적인 민족사와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이후 어머니로 상징되는 집과 가족관계로 환원되는 경험 때문에 모성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모성신화는 196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 진영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파이어스톤(Firestone)<sup>3)</sup>과

- 
- 1) 한지희,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아드리안 리치의 삶과 페미니스트 비평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7, 14면.
  - 2) 권명아, 『모성신화와 가족주의 그 파시즘적 성격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제1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9, 161-199면.
  - 3) Firestone, S.,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3.

허쉬(Hirsch)<sup>4)</sup> 등은 여성과 모성을 등치시키며 신비화하는 모성담론이 결국은 여성을 가정 내에 안주하게 하고,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을 정상에서 벗어나거나 ‘여성성’이 결핍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여겨지는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이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본질(essence)이라기보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구성물<sup>5)</sup>이듯 ‘모성’ 또한 사회적 구성물이자 상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며 이런 사회적 지배담론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재현체계를 주목해 왔다. 홍지아는 2000년대에 방송된 TV드라마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대다수 드라마가 모성을 여성의 본능으로 신화화하고 여성을 공적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 정서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하고 사회자원의 분배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6)</sup> 이희승 역시 그동안 한국영화가 모성을 가족관계에 예측된 것으로 보고 여성을 유교주의적 가부장제라는 틀 속에 가두면서 아이의 양육자이자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역할로 한정하는데 주요한 문화적 기제의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sup>7)</sup>

그런데 이처럼 혈연에 의한 가족관계를 상정하고, 희생적인 전업주부를 이상화하는 기존의 모성담론과 미디어의 재현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4) M.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5) M. Vavrus, “Domesticating Patriarchy: Hegemonic Masculinity and Television’s ‘Mr. Mom’”,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9 No.3, Routledge, 2002, pp. 352-375.

6) 홍지아,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체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제23권 6호, 한국방송학회, 2009, 285면.

7) 이희승, 「정주(停住)하는 모성의 기호들: 〈가족의 탄생〉, 〈괴물〉, 〈열혈남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364면.

늘어나고 있는데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혼하지 않는 비혼여성의 증가와 출산기피로 인해 출생이수가 30개월 연속 감소하고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상황<sup>8)</sup>에서 여성이라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담론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친부모가 76.1%이며, 친모가 무려 31.7%를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sup>9)</sup>는 ‘모성’을 여성의 생물학적 본성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모성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모성에 대한 재사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모성이데올로기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한 채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떠넘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sup>10)</sup>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tvN에서 방송됐던 드라마 <마더><sup>11)</sup>는 그동안 미디어가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지지하며 견지해 왔던 ‘모성’ 재현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성의 재사유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대중문화평론가인 황진미는 이 드라마가 양육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아동학대가 단지 개인의 인격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부재로 생기는 참사임을 고발하고 모성의 의미를 되짚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sup>12)</sup> 실제로 드라마 <마더>는 기존의 TV드라마가 답습해 왔던,

8) 김은성, 「올해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아시아 투데이』, 2018.7.25.(<http://www.asia today.co.kr/print.php?key=20180725010014656>, 2018.07.27.검색.)

9) 이장호, 「가정폭력·아동학대 매년 급증」, 『법률신문』, 2018.5.17.(<http://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143068>, 2018.07.25.검색.)

1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11) 2010년 일본 NTV가 방영한 동명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마더>(극본: 정서경, 연출: 김철규, 윤현기)는 총 16부작으로 2018.1.24-3.15.까지 방송됐으며, 지난 5월 <제54회 백상예술대상> 드라마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1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경쟁부문에 초청됨으로써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모성’을 여성의 본능이자 절대적 가치로 상정하고 모성을 저버린 어머니를 응징하는 획일적 서사를 거부한다. 친모와 동거남의 확대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아동을 구출해 끝내 엄마가 되는 비혼모,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세 딸을 입양해 주체적으로 키워내는 여성, 그리고 자식을 방기할 수밖에 없는 미혼모 등 다양한 ‘모성’의 양상을 재현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드라마 <마더>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디어의 ‘모성’재현 방식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 드라마가 구성하는 현실과 ‘모성’담론이 역설적으로 어떤 사회적 단면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분석을 위해서는 TV드라마의 재현 방식과 의미를 분석해 내는데 유용한 채트먼(Chatman)의 서사분석 틀<sup>13)</sup>을 원용하였다. 채트먼은 서사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인물, 사건, 인물간의 관계 등에 대한 계열체 분석과 함께 플롯의 전개와 인과성을 밝혀낼 수 있는 통합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이 서사가 연속되는 드라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인물의 특성과 사건, 인물간의 관계, 그리고 담화 차원에서 극의 메시지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의 서술행위, 독백 등에 대한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4)</sup> 또한 통합체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 가는 갈등구조와 권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도로프(Todorov)의 시퀀스 분석틀<sup>15)</sup>을 활용하였다. 토도로프는 일반적으로 서사는 균형 상태에서 어떤 힘에 의해 갈등을 겪는 불균형상태를

12) 황진미, 「‘마더’로 성장하다」, 『한겨레21』 제1203호, 2018.3.16.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054.html](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054.html), 2018.07.15.검색.)

13) S. Chatman,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와 담화』, 서울: 민음사, 1990.

14) 본 연구에서 담화 차원의 영상 이미지, 카메라 효과 등의 표현양식에 대한 분석을 제외한 것은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표현양식보다 인물, 사건, 인물간의 관계를 통한 이야기와 등장인물의 대사와 독백 등의 서술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15) T. Todorov, R. Howard (tran.), *The Poetics of Pro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거쳐 다시 평형상태로 복원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분석방식은 평형에서 불균형 상태를 불러오는 원인과 새로운 균형 상태를 가져오는 캐릭터와 힘을 파악함으로써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와 텍스트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해 내는데 유효하다고 평가된다.<sup>16)</sup> 따라서 이러한 통합체 분석 방식은 드라마 <마더>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힘과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포착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핵심 가치를 밝히는 데도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사회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기제로 작용해온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텍스트의 새로운 서사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성’의 재사유와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모성신화가 여성이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은폐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이 담보상태에 머무르는데 일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절벽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양육의 공공화’라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미디어의 ‘모성’ 재현에 관한 기존 연구 및 논의

‘모성’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의 근간을 이뤄왔으며, 이른바 모성 거부와 해체론, 모성 예찬론으로 나뉘는 대립양상을 보였다. 앞서 말한 파이어스톤이나 허쉬 등 기존의 모성 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모성이 여성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여성을 모성 담론의 틀 안에 가두는 ‘억압의 기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

16) 김환희·이소운·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18면.

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여성을 어머니로 환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한, 여성의 성적 주체로서의 욕망표출에 대한 제한 등 구체적인 억압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17)</sup> 반면 모성 예찬론자들은 남성과 여성, 양성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모성’을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 평화, 관계지향성 등에 있어서 여성이 가지는 우월함과 힘의 원천으로 인식해 모성 경험과 실천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이에 대해 이연정은 논의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관점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풍부한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실제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며, 두 입장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sup>19)</sup> 즉 모성의 가치를 거부하는 급진주의적 입장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모성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간과하여 여성의 삶 속에 포함된 친밀하고 열정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반대로 예찬론은 모성을 여성의 대안적인 이상으로 격상시켜 여성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차별과 억압 등 부정적인 측면을 부인함으로써 여성들을 다시 생물학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성’이 페미니즘 논쟁의 중심 의제가 되면서 사회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미디어가 ‘모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졌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미디어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는 TV드라마의 ‘모성재현’을 분석하는 만큼, 대중에게 가장 친숙할 뿐 아니라 비교적 유사한 서사구조와 양식으로 동시대의 가치체계를

17)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서울: 나남출판, 1999, 56-57면.

18) A. Rich,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6.

19)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서울: 나남출판, 1999, 24-26면.

재현하는 TV 텍스트와 영화 등의 ‘모성’ 재현방식과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한 갈래는 ‘모성’이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여성 억압의 기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미디어가 어떠한 서사전략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적 주체로서의 욕망 표출을 제한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지아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송된 드라마 26편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드라마가 출산과 살림, 자녀양육 등에 몰두하는 전업주부형 희생적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로 구별하는 모성의 상징적 경계가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하고, 여성을 정서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서 여성, 특히 어머니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서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20)</sup> 이를 위해 모성을 포기하는 어머니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역할과 부정적 결말을 부여하는 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에게 갈등해결과 행복의 결말을 선사하는 대조적 서사를 통해 결국 모성을 여성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현하고 있다며 이를 ‘모성본능의 신화화’ 전략으로 명명했다. 또한 가족의 해체를 불러오거나 숭고한 모성 신화를 더럽히는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회개와 용서’ 전략을 통해 모든 여성의 성적 욕망을 가부장제 안으로 제한한다고 보았다. 허윤도 <거침없이 하이킥>, <좋지 아니한家>, <가족의 탄생>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가족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극중 며느리와 시부모, 부부의 전도된 관계, 혈연과 가부장제의 엄격한 질서를 벗어난 가족의 형태 등 ‘정상가족의 신화를 깨는 전복적이고 혁신적인 서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서사의 마지노선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모성의 재현관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sup>21)</sup> 홍지아의 통시적 연구 역시 이를 잘 보여주는데,

20) 홍지아, 앞의 글, 284면.

21) 허윤, 「그리고 다시 어머니로: <거침없이 하이킥>, <좋지 아니한家>, <가족의 탄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중문화 속 가족담론」, 『여성이론』 제16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20년대 발간된 잡지 <신여성>과 2012년 방송된 <EBS 60분 부모>의 서사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모성담론의 역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개의 텍스트가 설파하는 이상적인 어머니 노릇은 여성의 성취보다 공통적으로 24시간 자녀에게 집중하는 자녀 중심의 희생적 모성 실천과 전문가 수준의 육아 및 교육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70년의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sup>22)</sup>

‘모성’의 재현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김현숙과 김수진은 1960~90년대의 사회상과 모성담론을 엿볼 수 있는 <미워도 다시 한번>, <길소뜸>, <안개기둥>, <미스터 맘마>, <고스트 맘마> 등 5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그 재현방식을 분석하고 가족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갈등의 소재가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모성과 동일시하며 가부장제 안으로 모순들을 통합하려 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sup>23)</sup>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미워도 다시 한 번>과 80년대 중반의 모성 담론을 담은 <길소뜸>이 공통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정상적 핵가족 사이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면서도 결국은 모성의 복원을 통해 어떠한 균열과 갈등 속에서도 가부장제 핵가족은 유지된다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안개기둥>이 80년대 고학력 중산층 여성이 자신의 자아 성취와 자녀 양육 사이에서 모성성에 대한 갈등을 겪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연시된 모성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90년대의 <미스터 맘마>를 보면 발전적인 해결 대신 다른 여성을 모성역할의 대체자로 지명하고, 낭만적 사랑을 통해 그 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가부장제로 복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 240-259면.

22) 홍지아,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제38권 1/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205-228면.

23) 김현숙 김수진, 「영화 속의 모성, 영화 밖의 모성」, 『사회와 역사』 제52집, 한국사회학회, 1997, 231-255면.

2009년에 선보인 영화 <마더>(2009) 또한 ‘모성’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선아는 모성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인용과 실천을 통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수행성’으로 이해하고, <마더>에 나타난 모성 정체성에 대해 분석했다.<sup>24)</sup> 그 결과 <마더>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규제적 이상으로서의 지배적인 ‘모성’을 재현하는 반면, 아들의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폭력과 살인, 방화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초법적 주체가 되는 호명된 모성을 전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가 향상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혼여성의 성적 욕망과 낭만적 사랑을 모성과 결부시켜 가부장제 안으로 제한하는 미디어의 재현방식에 타협과 균열이 감지되기도 한다. 윤석진은 같은 시기 방송된 영화 <정사>와 <해피엔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사>가 결혼과 사랑의 본질,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탐구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텍스트라면 <해피엔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텍스트라고 지적했다.<sup>25)</sup> 옛 애인과의 만남을 위해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모성마저 저버리는 여성이 끝내 남편에게 살해되는 결말을 통해 “욕망에 충실한 여성을 응징함으로써 IMF 이후 경제적 주권 상실기에 해체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한 영화”라는 것이다.<sup>26)</sup> 김훈순과 김은영도 각기 다른 시기에 리메이크된 멜로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세 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경합과정에서 낭만적 사랑이 점차 확대되고 여성들의 욕망이 투사되고는 있으나, 사건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여

24) 박선아, 「영화 <마더>에 나타난 수행적 모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55집, 한국영화학회, 2013, 173-195면.

25) 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길항관계 고찰: <정사>와 <해피엔드>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2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209-241면.

26) 윤석진, 위의 글, 227면.

주인공에 가해지는 가부장적인 처벌 등을 고려해볼 때 가부장제와의 갈등과 타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sup>27)</sup> 보다 최근에 이뤄진 연구에서는 이런 재현관습과 코드가 파괴되는 지점도 발견되었다. 김미라는 40세의 가정이 있는 커리어 우먼과 피아노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스무살 청년의 사랑이라는 과격적인 소재를 다룬 멜로드라마 <밀회>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이 드라마가 ‘불륜’을 우리 사회의 절대적 가치인 ‘가족’과 ‘모성’의 신화와 연관 지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탁해 여성의 욕망에 대한 처벌, 가족의 복원이라는 도식적 결말로 이루어진 기존의 재현관습을 타파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sup>28)</sup>

또 하나의 연구 갈래는 모성을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이나 혈연관계에 국한된 억압의 기제로 보지 않고 모성 예찬론자들이 주장했듯이 모성을 타자에 대한 보살핌, 공감, 배려, 용서 등의 자질로 인식하고 텍스트에 내재된 모성의 기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희승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가족의 탄생>, <괴물>, <열혈남아>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세 편의 영화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성의 징후들을 탐색하였다.<sup>29)</sup> 그는 2000년대 이후 일부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모성성은 가족관계를 통해 드러나지만, 기존 한국영화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어머니로 대변되는 ‘한과 자녀에 국한된 희생의 모성’이 아니라 측은지심, 나아가서 타자를 끌어안는 박애주의로 확장되는 광의의 모성성과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석대상인 세 편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모성성은 여성이나 어머니와 같은 특정 인물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행위, ‘밥을 먹는 행위’, ‘돌아가는’ 행위로 표상되며, 이로써 성 역할의 구분이나 성애화된 방식의

27) 김훈순 김은영,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경합: 멜로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121-153면.

28)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제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307-339면.

29) 이희승, 앞의 글, 359-386면.

모성 재현에서 벗어나, 남성 주체와 여성 주체가 공히 구현하는 확장된 개념의 모성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의 탄생>과 <괴물>은 공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보다 특정한 행위와 정서를 기반으로 새롭게 엮어진 대체적 가족관계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이어주는 강력한 유대의 끈이 ‘모성’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 영화에서 모성의 기호는 ‘잡’과 ‘먹는 행위’로 집약되는데, <열혈남아> 역시 국밥집을 하는 점심이 유사 어머니로서 모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갱스터들을 먹이고 품어줌으로써 확장된 모성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진은경과 음영철 역시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영화 <피에타>에 나타난 ‘모성’ 연구를 통해 <엄마를 부탁해>가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를 온몸으로 지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신화화된 모성, 희생적인 모성을 그렸다면, 영화 <피에타>는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양아들 이강도가 자본주의의 희생양임을 깨닫고 이강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어머니를 통해 모성의 양가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sup>3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모성’에 대한 미디어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모성이데올로기와 공모하여 미디어가 어떤 재현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가정이라는 공간에 제한하고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배제시켜 왔는가, 낭만적 사랑과 여성의 성적 욕망을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제한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재현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러한 모성 재현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를 포착하고, 새로운 재현방식과 모성의 기호들을 분석해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가 간헐적으로나마 ‘모성’과 관련해 보다 진일보하고 확장된 재현방식과 담론을 드러내는데 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드라마는 훨씬 보수적으로 ‘모성’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왔다. 이런 점 때문에

30) 진은경·음영철, 『『엄마를 부탁해』와 <피에타>에 나타난 모성의 양가성 연구』, 『통일인문학』 제5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314-341면.

드라마의 ‘모성’재현 연구는 왜곡된 재현방식을 밝혀내는데 집중돼 왔는데,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드라마 <마더>에 대한 서사분석을 통해 급격한 가족관계의 붕괴와 인구사회학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모성’재현과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지점을 포착하고, 그러한 새로운 재현방식에 내포된 사회적 함의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모성신화의 해체, 그리고 ‘모성’연대의 가능성

올해 1월부터 총 16부로 방송된 드라마 <마더>는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조류학자인 30대 강수진(이보영 분)이 임시로 근무하던 강원도 무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1학년 3반 김혜나(허율 분)라는 아이와 만나면서 시작된다. 혜나는 친엄마와 동거남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8살 나이에 혼자 햄스터 사육통을 들고 밤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로 친구들에게도 불결하다며 따돌림을 당한다. 곧 철새를 연구하러 아이슬란드로 떠날 계획이었던 수진은



〈그림 22〉 드라마 <마더>의 인물관계도

애써 이런 혜나를 외면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 커다란 쓰레기 봉지에 담

겨 집 앞에 내버려진 헤나를 발견하고 함께 아이슬란드로 떠나기로 결심, 험난한 도주길에 오른다. 유괴범으로 몰려 위기에 처한 수진을 도와주는 양모와 친모,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해외로 떠나기 직전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고 헤나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이 서사의 근간을 이룬다. <마더>라는 드라마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 드라마에는 각각의 사연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어머니’와 ‘모성’이 등장하는데,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sup>31)</sup>

### 3.1. 혈연을 뛰어넘는 ‘모성’의 확장과 실천

먼저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마더>가 어머니와 모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채트먼의 이야기(story) 분석틀을 원용하여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특성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드라마 <마더>에는 기존의 미디어가 재현했던 혈연 중심의, 자식과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고 집착하는 전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살피고 보듬는 미혼모와 입양모,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친모와 친자식을 학대하고 방기하는 미혼모 등 다양한 엄마들이 등장한다. 먼저 주인공인 강수진은 철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로, 근무하던 대학 연구소가 폐쇄되자 아이슬란드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출국 전 인근 초등학교에서 잠시 과학전담교사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담임을 맡았던 1학년 3반 아이 중에 친모와 동거남의 학대로 영양실조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헤나를 만나게 된다. 수진은 동료 교사와 함께 아동학대 상담센터, 경찰 등을 찾아다니며 헤나에 대한 학대사실을 알리고 조사해 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출국 준비에 분주했던 수진은 헤나가 마음에

31) 드라마 <마더> 공식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mother/10/Contents/Html> (2018.07.10.검색.)

걸리면서도 체념한 채 헤나를 외면하기로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기르던 오리를 괴롭혀 죽게 만든 아이들을 타이르며 극 초반 수진이 했던 말은 그녀의 심상과 앞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여정을 암시해 준다.

수 진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절대로 여자, 동물, 너희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 것! (1화)

어느 날 밤거리를 헤매는 헤나를 발견한 수진은 다섯 살 때부터 혼자 다녔다는 헤나를 집에 데려와 지저분한 손톱을 깎아주면서 헤나에게 어쩔 수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든다.

수 진            지저분한 아이는 공격받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신호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돌봐야 해. (1화)

이튿날 수진은 헤나가 자신의 집에 놓고 간 수첩을 돌려주기 위해 갔다가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밤 친모와 동거남에 의해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 버려진 헤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대로 헤나를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진은 헤나가 바다에 실종된 것처럼 정황을 위장해 놓고 결국 헤나를 데리고 아이슬란드로 가기 위해 도주를 감행한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 헤나를 윤복이란 이름으로 부르자고 약속하며 수진은 윤복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작고 상처받은 아이를 품어주고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다.

수 진            지금부터 너를 윤복이라고 불러도 갑자기 니가 백 프로 윤복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겠지.

아마 나도 갑자기 윤복이 엄마가 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어느 날 너도 윤복이가 되고 나도 윤복이 엄마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2화)

이후 수진은 혜나와 무사히 국내를 빠져나가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기도 하고 온갖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보다는 혜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혜나의 손을 놓지 않고 진한 모성애를 보여준다. 혜나가 친모의 동거남인 설악이 과거 다른 동거녀들의 아이들도 학대하고 죽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뒤쫓는 설악이 혜나를 납치해 데려가자 수진은 목숨을 걸고 다시 혜나를 구해 도주한다. 그러나 유괴범으로 몰려 공개 수배되고 이들을 뒤쫓는 경찰에 의해 밀항 직전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혜나에 대한 접근금지를 선고 받게 된다.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혜나가 늘 마음에 걸렸던 수진은 혜나가 거식증에 걸릴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형기를 마치자 재판까지 해서 결국 혜나를 법적인 자신의 아이로 입양한다. 수진 역시 6살 때 친모에 의해 보육원 앞에 버려진 후 입양된 상처를 가진 인물로, 혜나를 데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수진**            제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3화)

극중 수진의 이 독백은 ‘모성’이 생물학적인 출산에 의해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본능이라는 모성 신화를 전복하고, 어떤 국면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서히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마더>가 지향하는 이런 ‘모성’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



의 인물은 바로 수진을 입양해 키운 양모 차영신(이해영 분)이다. 60대의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카리스마 넘치는 여배우로 등장하는 차영신은 젊은 시절 남편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되고,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봉사 활동을 갔던 정애원이라는 보육원에서 8살 수진을 만나 입양했다. 그 후 영신은 좋은 환경에서 친딸보다도 더한 사랑과 애정을 쏟으며 수진을 키우지만 수진은 이런 영신을 부담스러워 하며 25살에 집을 떠나 10년째 소식이 없다. 영신은 그래도 수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끊지 않는데,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이 걱정돼 평생 매니저로 자신을 보필했던 재범에게 수진을 데려오라고 독촉한다. 재범이 수진의 행적을 좇아 아이슬란드로 떠난 어느 날, 영신 앞에 헤나를 데리고 불쑥 나타난 수진은 돈을 빌려 달라 하고 수진이 위협에 직면한 것을 알아챈 영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며 두 팔을 벌려 수진 모녀를 반긴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딸과 외손녀를 본 영신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헤나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보살피 줘야 한다며 포기했던 항암치료를 받겠다고 나서 딸에서 손녀딸로 이어지는 진한 모성을 표출한다.

**영 신** (의사에게)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냥 평소 내 스타일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엄마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은 남자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차마 죽을 수 없는 게 엄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자식이 셋인데 둘은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애 하나만 딱 여덟 살에서 안 크고 그대로예요...(수진 보며) 제 마음 속에서는요. (5화)

영신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신은 수진 말고도 이진과 현진, 두 아이를 더 입양해 남편 없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세 딸을 차별 없이 사

량을 쏟으며 길러낸 입양모이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수진이 아  
이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이를 반기는 영신에게 그때까지 자신은 영신의  
친딸인 줄 알고 있었던 이진이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며 못마땅해 하자  
영신은 화를 내며 나무란다.

**영 신** 이진아. 엄마는 아버지가 다른 딸 셋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니들이 내 딸이라는 것  
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내가 낳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내 친딸이 아닌 애는 하나도 없어. 엄  
마가 키웠으면 다 내 친딸이야. 너 다시 한 번 운복이(혜나)  
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화낸다. (7화)

이처럼 친자식이냐 아니냐는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고 보다 확장된 모성을 실천하는 인물은 수진과 영신 말고도 또 있  
다. 바로 수진이 버려졌던 보육원의 원장수녀 글라라 선생님이다. 부모에  
게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뜰하게 보살폈던 그녀는 숨바꼭질을 하  
는 아이들을 넓은 치마폭에 품어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며 친  
엄마처럼 늘 주문을 외었다.

**글라라 선생님** 빨리 자라라. 많이 먹고 빨리 자라라. (3화)

엄마에게 버림받고 굳게 입을 다문 어린 수진의 상처받은 마음을 열어  
준 것도 글라라 선생님이고, 혜나를 데리고 도주하면서 오갈 데가 없게  
된 수진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도 글라라 선생님이 있는 정애원이다. 폐  
허가 되다시피 한 보육원을 끝내 팔지 않고 홀로 지키고 있던 글라라 선  
생님은 이제는 늙고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는 노인이 되었지만, 평생을 그  
랬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수진과 혜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한다.

**글라라 선생님** 엄마가 되는 건 중병을 앓는 것과 같애. 모든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순 없겠지. 아주 힘든 일이야. 넌 잘할 거야. (3화)

보육원 아이들의 기록을 엄마가 텃줄을 보관하듯 간직하고 있던 글라라 선생님은 수진에게 처음 보육원에 버려질 때 입었던 옷가지와 수진이 묶여 있었던 자전거 자물쇠를 건네주고, 보육원 땅을 팔려는 조카에 의해 요양원에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수진과 혜나에 대한 애뜻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글라라 선생님** 윤복(혜나)야. 넌 선생님 마지막 아이야. 엄마 잘 부탁해. 수진야. 엄마가 돼줘서 고맙다. 니딸 안아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어. 하느님이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 심 좋겠어. 우리 수진이가 엄마가 됐다는 거. (3화)

이처럼 수진이 자란 정애원은 ‘넓은 치마폭’과 ‘따뜻한 밥’, ‘아이들의 텃줄 같은 기록’ 등 모성의 기호들이 가득한 곳이며, 그곳에서 글라라 선생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실천한다.

### 3.2.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의 이분법적 서사 파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드라마 <마더>에는 핏줄을 떠나 상처받은 아이들을 조건 없이 보듬고 품어주는 확장된 모성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등장하는 반면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방기하는 엄마들도 등장한다. 그러나 <마더>는 기존 미디어의 재현방식과 달리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를 구분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 좋은 엄마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쁜 엄마는 응징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서사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여성들이 ‘모성’을 버리고 방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 각각의 사정과 고통에 주목한다.

수진의 친모인 홍희는 열아홉 살에 아이를 낳고 가족에게서 도망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수진과 거처할 잠자리를 내준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고, 어린 수진마저 폭행을 당하자 어느 날 수진을 데리고 함께 물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로 간다. 그러나 어린 수진이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는 말버둥치자 발길을 돌려 수진을 춘천의 한 보육원 앞에 자전거 자물쇠로 묶어둔 후 남편을 죽이고 자신은 살인자가 되어 6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다. 어린 딸을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육원 앞에 버린 것이다. 이런 홍희의 절절한 마음은 헤나와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수진과의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수 진**            처음엔 엄마가 나를 때렸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고... 그런데 다 기억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홍 희**            나는 사람을 죽였어. 짐승 같은 남자를 죽였어. 나는 겨우 열아홉이었는데 아버지, 할머니, 고모 다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가 뱃속에 있는 느낌이 좋았어. 니가 생긴 후로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 하지만 니가 그놈한테 맞아 계단에서 굴렀을 때 눈이 돌아갔어. 널 데리고 곧바로 집을 나왔는데 붙잡혀서 어마어마하게 맞았지. 이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남자 죽인 거 후회하지 않아. 안 그랬으면 다음번에는 너랑 내가 죽었을 테니까... 널 버린 게 아니야. 무끄러운 내 삶에서 널 내보낸 거야. 내 아이를 다른 삶으로 날아가게 하고 싶었어. (8화)

방송에서 배우 차영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수진이 영신에게 입양돼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홍희는 출소 후 영신의 집 근처에 이발소를 내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학교를 오가는 수진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살아간다. 그 후 집을 나가 10년째 모습을 보이지 않던 수진이 어느 날 불쑥 혜나와 이발소로 들어서고, 홍희는 수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기꺼이 방을 내어준다. 혜나가 수진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홍희는 혜나를 친할머니처럼 품어주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끝까지 수진의 밀항을 돕는다. 홍희가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처음에는 왜 자신을 버렸냐며 홍희를 원망하고 집을 떠나지만 혜나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홍희를 이해하게 된다.

**수 진** (독백) 30년 전 그날 밤 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아이 앞에서 경찰에 잡혀가기 싫다는 생각,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두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제껏 내가 엄마를 용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껏 내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이제 엄마가 됐나 보다. (13화)

<마더>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엄마라고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모상’도 등장한다. 바로 혜나의 친모인 자영이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남자에게 버림받고 혜나를 데리고 화장품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영은 아직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싶은 미성숙한 이십 대 엄마다. 자영은 화물차 기사인 설악을 만나 동거하며 혹시라도 혜나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이 의지하는 설악이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설악이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혜나를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한다.

- 자 영**           엄마는 삼촌(설악)을 아주 좋아해. 삼촌이 없으면 엄마 죽  
어 버릴거야. 그러니까 너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너 때  
문에 삼촌이 도망가 버리면 엄마 기분이 어떨겠어? 엄마  
가 행복해야 너도 좋지? 말로 해봐.
- 혜 나**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좋아. (2화)

혜나는 여덟 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악이 자기 때문에 떠나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설악의 학대를 참아 낸다. 그런데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집에 돌아온 자영은 설악이 어린 혜나에게 빨간 립스틱을 칠해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아 묶어놓은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훗김에 자영은 쓰레기 봉지에 담긴 혜나를 집 앞에 내다 버리고, 설악과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나 자영은 혜나가 사라지자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만 알고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 설 악**           너 혜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 자 영**           무슨 말을 그렇게 해?
- 설 악**           다시 안돌아왔으면 좋겠어?
- 자 영**           내가 지금 안 슬픈 거 같아? 나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애.  
너무 무섭고, 내가 너무 미워. 꼭 나 땀에 죽은 거 같아  
서... (2화)

이처럼 ‘모성’을 저버린 채 자식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린 자영에게조차 <마더>는 그녀를 단죄하기에 앞서 미혼모로서 그녀가 처한 상황과 상처 등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한다.

- 자 영**           하지만 난 너무 힘들었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게...  
(희상 씬: 자살하려고 수면제 세는 자영) 애 데리고 나쁜

생각해본 엄마는 알거예요. 자기 아이 눈빛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9화)

이후 혜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수진이 데리고 도주 중이고 설악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자영은 영신의 집으로 혜나를 찾으러 간다. 그러나 자영을 만난 혜나는 자신은 운복이라며 혜나는 그날 밤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 딸을 붙들고 울다가 설득하다가 하던 자영이 짐짓 체념한 척 수진에게 혜나를 맡기고 돌아서는 장면은 위험한 설악으로부터 혜나를 놓아주고 싶은 어쩔 수 없는 엄마로서의 고뇌와 선택이 드러나 연민까지 갖게 한다.

**자 영**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알아요? 난 다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처럼... 그냥 나쁜 꿈을 꾸 것처럼...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중에 힘들다고 도로 돌려줄 생각 하지 말아요. 나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9화)

이 드라마에는 자영을 비롯해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린 설악과 단둘이 남아 살려고 몸부림치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설악의 모, 자영을 만나기 전 설악이 동거했던 또 다른 미혼모들이 등장한다. 드라마는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된 미혼모들이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성’을 버리고 아이를 방기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을 주목한다.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서사를 탈피한 것이다.

### 3.3. 성별 구분을 넘어선 ‘모성’의 실천

그동안 모성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면서 그들의 삶을 옥죄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희승은 일부 영화 텍스트에서 모성성이 여성이나 어머니와 같은 특정 인물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 구별이나 성애방식의 모성 재현에서 벗어나, 남성 주체와 여성 주체가 공히 구현하는 확장된 개념의 모성을 재현하는 징후가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sup>32)</sup> 즉 남성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될 수는 없지만 타자에 대한 보살핌과 공감 등을 통해 모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마더>에는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진 아버지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약자를 보듬는 남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먼저 영신의 주치의로 어느 날 영신의 주선으로 불려 나와 수진을 만나게 된 진홍은 수진처럼 새를 좋아하는 의사이다. 수진이 학대받는 혜나를 데리고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홍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아픈 혜나를 돌봐주며, 도주상황에서 친모의 존재를 알고 혼란스러워 하는 수진을 숲에 데려가 쉬게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 수진이 끝까지 남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홍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진과 혜나가 무사히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들을 돕고 함께 한다.

수진의 선배인 은철 역시 수진이 혜나를 데리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진을 이해하고 멀리서 이들이 발각되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40년 넘게 영신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재범 역시 영신과 수진 자매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도와주며, 수진의 세 자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는 인물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영신을 끝까지 챙기고,

32) 이희승, 앞의 글, 359면.



자신에게 닥쳐올 위협을 알면서도 수진이 혜나를 데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위조여권까지 구해줄 만큼 타자와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배려가 남다르다.

또 이 드라마엔 수진과 혜나를 집요하게 뒤쫓는 형사 창근과 후배 형사가 등장하는데, 수사를 종료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창근이 수진 일행을 쫓은 것은 혜나를 유괴한 수진을 검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쫓는 설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더 크다. 창근은 수진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증언을 해주며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혜나를 살피고, 후배 형사는 창근에게 아예 징계를 감수하고라도 혜나를 위해 수진을 놓아주자고 말한다.

**후배형사**      팀장님도 봤잖아요 혜나엄마. 우리가 오늘 강수진 잡으면 혜나는 다시 그런 여자한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도망친 애예요. 진짜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바보 되고 강수진 놔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강수진이 정말 애를 아끼는 것 같다고... (13화)

이상의 계열체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드라마 <마더>는 모성을 가족관계에 한정된 여성의 본능으로 상정하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해 왔던 기존의 획일적인 재현방식에서 벗어나, 혈연이나 가족관계, 남녀 구분의 성별까지를 넘어선 타자와 약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꺼이 보듬는 확장된 모성의 경험과 실천을 보여준다.

### 3.4. 약자를 구원하는 ‘모성’ 연대와 힘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계열체 분석에 이어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들을 원용하여 통합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도로프는 일반적으로 모든 서사물이 균형-불균형-균형으로의 복원이라는 구조를 가지는데, 서사가 불균형상태에서 균형상태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을 파악하는 것이 그 서사물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유용하다고 보았다.

먼저 드라마 <마더>의 전체 서사를 이끌어 가는 주요 시퀀스는 주인공 수진이 친모와 동거남의 학대로 죽음에 직면한 여덟 살 혜나를 데리고 도주를 감행, 온갖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결국 혜나를 입양해 엄마가 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어린 시절 친모에 의해 보육원에 버려졌던 수진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자신을 품어줬던 글라라 선생님과 인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입양해 친딸처럼 좋은 환경에서 키워준 양모 영신에 의해 자신이 좋아하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로 반듯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때 영신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워 집을 떠났던 수진이 혜나와의 도주 과정에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이들을 받기며 수진이 혜나를 구해 떠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것도 역시 양모인 영신이다. 영신은 수진이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돼 자신의 딸임이 밝혀져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도피 중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수진을 걱정하고 위로한다.

수 진            엄마, 죄송해요

영 신            수진아. 엄마는 니가 쓸데없이 사과하는 거 싫어. 하지 마...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내 딸이고, 니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을 거야. 누구 만나든 굶히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당당해라... 윤복이(혜나) 괜찮나?

수 진            잘 있어요.

영 신            니가 침착해야 해. 엄마니까 알지? (10화)

죽음을 앞둔 영신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수진을 위해 스스로 언론에 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영 신** 자기 배로 애를 낳아야만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건 다른 작은 존재한테 자기를 다 내어줄 때예요. 혜나 엄마는 낳기만 낳았지 엄마가 아니구요. 우리 수진이가 진짜 엄마예요. (14화)

위험에 처한 수진과 혜나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영신과 수진의 친모 홍희인데, 추운 밤 오갈 데 없는 수진과 혜나에게 홍희가 내어준 이발소 옥탑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은유된다.

**혜 나** 엄마 자요?  
**수 진** 아니, 그런데 움직이고 싶지가 않네.  
**혜 나** 나도 그런데.  
**수 진** 밖엔 추울 거야.  
**혜 나** 여긴 따뜻해요. 그죠?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을 막 헤매다가 발견한 그 집 같아요. (5화)

이처럼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상처투성이였던 수진과, 어린 시절 수진을 투영한, 역시 학대를 받고 죽음에 직면한 작은 아이 혜나를 보듬고 위험에서 구원한 것은 바로 그 모습과 이름은 다르지만 어머니의 ‘모상’이자, 그들 간의 끈끈한 연대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영신은 뒤늦게 홍희를 불러 자신이 죽은 뒤 수진의 엄마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홍희는 영신에게 수진이 얘기일 때 사진과 배냇저고리를 건네주며 수진은 영신의 딸이라고 위로한다. 영신은 수진의 딸인 혜나와 나란히 침대

에 누워 조용히 숨을 거두고, 영신이 떠난 후 흥희는 수진과 혜나는 물론 영신이 입양한 이진과 현진 두 딸과 아이들을 모두 가족으로 품게 된다.

	균형	불균형	균형 회복
수진 (어린 시절)	· 미혼모의 딸이지만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음.	· 엄마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함. · 보육원에 버려짐	· 보육원 원장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됨. · 영신에게 입양돼 좋은 환경에서 성장함.
수진 (성인)	· 자신이 좋아하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로, 전문직 여성으로 생활.	· 혜나를 데리고 도주, 갖은 위험에 직면함. · 유괴범으로 체포,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받음.	· 양모인 영신과 친모인 흥희,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혜나를 입양함. · 혜나의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양모, 친모와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함.
영신	·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대배우가 됨.	· 남편의 외도와 이혼 · 암이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음.	· 수진 등 세 딸을 입양, 배우와 엄마로서 성장. · 엄마가 되어 돌아온 수진과 혜나로 인해 안정을 찾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함.
흥희	· 미혼모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룸.	· 남편의 폭력으로 결국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수감됨.	· 영신이 수진을 입양하여 잘 키워줌으로써, 안도하고 일상을 회복 · 엄마가 된 수진과의 만남으로 뒤늦게 모성을 경험, 행복한 노후

<b>혜나</b>	· 엄마와 단둘이 생활	· 동거남의 등장으로 학대를 당하며 죽음의 위기에 직면	· 수진과의 만남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 수진의 사랑과 입양으로 치유를 받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
-----------	--------------	--------------------------------	---

〈표 1〉 균형-불균형-균형의 서사구조

드라마 <마더>는 또한 어린 시절 학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힘없는 아이들만 보면 동물처럼 괴롭히며 학대하다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설악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물림을 고발하면서도 결국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또한 ‘모성’의 힘임을 강조한다.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받고 쓰레기 봉지에 버려졌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약자라 할 수 있는 혜나는, 수진과 다른 어머니들의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한다. 혜나가 수진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족들이 수진이 유괴범으로 몰릴 것을 염려하며 수진을 비난하자 이를 듣게 된 혜나는 수진이 잠든 사이 짐을 싸서 편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난다.

**혜 나**            엄마. 나 이제 가야 될 거 같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면 안 되니까요. 나는 운복인 게 좋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를 사랑해요. 에이, 벌써부터 보고 싶다... (9화)

한편 혜나는 설악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설악이 학대받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자살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자 그때 설악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다며 자기도 엄마가 약 먹고 안 일어났을 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어린

아이답지 않게 설악에 대해 연민을 드러낸다.

이처럼 ‘모성’이 타자와 약자를 보듬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마더>가 지향하는 가치는 수진이 양모인 영신에게 한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 진           엄마. 엄마가 저한테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셨다면 그런 정말 오해예요. 전 요새처럼 엄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뱃속으로 낳은 딸이 아닌데도 가슴으로 품어주신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사랑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아이를 데려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9화)

#### 4. 맺음말: ‘모성’의 확장과 재사유

미디어가 생산하는 개별, 혹은 연속된 프로그램은 사회적 신화를 재생산하는 통로이자<sup>33)</sup> 동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 사회 공동체가 선호하는 지배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34)</sup>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의 경우 대중보다 더 보수적이고, 완고한 재현관습을 따르며 지배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는데,<sup>35)</sup> 그 가운데 하나가 ‘모성’담론이다. 그동안 미디어는, 특히 TV 드라마의 경우 여러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모성’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본능이자 절대적인 가치로 재현하며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제한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억압하는 등 가부장제를 지지해 왔다. 따

33) J. Fiske & J. Hartley, 이익성·이은호 역, 『TV 읽기』, 서울: 현대미학사, 1994.

34) M. White,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출판, 1994, 185-230면.

35) 김미라, 앞의 글, 336면.

라서 여성주의자들은 미디어의 이러한 방식의 ‘모성’ 재현을 비판하며, ‘모성’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실적으로도 혈연관계를 상정한 ‘정상가족’의 신화와 결부된 기존 ‘모성’담론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비혼모와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드라마 <마더>는 모성 신화를 해체하며, 다양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혈연을 뛰어넘은 모성의 확장과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더>가 지향하는 ‘모성’은 핏줄로 얽힌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약자의 이픔에 공감하고 이를 품어주고 배려하는 사회화된 박애주의적인 모성이다. 또한 <마더>는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받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인 여덟 살 혜나와, 혜나를 구출하고 끝내 엄마가 되는 비혼의 수진, 그리고 이들의 여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엄마들을 통해 약자를 구원하는 끈끈한 ‘모성’연대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줌으로써 ‘모성’에 대한 재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가족관계에 국한된 기존의 ‘모성’담론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기제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성을 앞세워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은폐함으로써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별 가정과 여성들에게 떠넘기고 아동 양육의 사회화를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sup>36)</sup> 실제로 드라마에서 수진과 동료 교사가 아동상담센터를 찾아 혜나의 학대 사실을 알리며 조사를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한 말은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 친권이란 거는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저희가 친권을 무시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강제로 가정에서 격리시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1화)

36) 이연정, 앞의 글, 37면.

이처럼 가족에게 강도 높게 부과된 권한과 요구가 아동학대의 증가와 학대받는 아이들이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만혼과 저출산, 별거와 이혼의 증가 등 ‘탈가족적’ 징후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sup>37)</sup> 따라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Nancy Folbre)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동을 이웃과 사회,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돌봄과 양육의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 <마더>는, 혈연 중심의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의 모성담론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고, 되레 이를 은폐하고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아동학대나 저출산문제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확장된 ‘모성’개념의 실천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해법을 제시해준 텍스트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마더>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성들의 모성 경험과 실천 속에는 현재의 지배 질서의 모순을 성찰하고 다른 삶의 질서를 창조하려 할 때 영감을 주는 속성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sup>38)</sup> 따라서 갈등과 반목, 폭력과 불안이 계속되는 사회에서 드라마 <마더>가 하나의 지표가 되어 미디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타인과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 평화,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모성’에 대한 확장된 해석과 생산적 담론을 생산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37) 서정애, 「저출산 담론과 젠더: 여성주의 비판과 재해석」,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서울: 휴머니스트, 2018, 175-195면.

38) 이경아, 「모성에 대한 여성주의 재사유」, 『한국여성철학』 제11호, 한국여성철학회, 2009, 173-197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드라마 <마더> 1~16화 VOD 자료

### 2. 단행본

-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서울: 휴머니스트, 2018.
-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서울: 나남출판, 1999.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 한지희,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아드리안 리치의 삶과 페미니스트 비평의 이해』, 서울: 소명출판, 2017.
- 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이야기와 담화』, 서울: 민음사, 1990.
- Firestone, S.,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서울: 풀빛, 1983.
- Fiske, J. & Hartley, J., 이익성·이은호 역, 『TV 읽기』, 서울: 현대미학사, 1994.
- Hirsch, M.,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Rich, A.,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W.W.Norton&Company, 1976.
- Todorov, T., Howard, R. (tran.), *The Poetics of Pro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 White, M.,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출판, 1994.

### 3. 논문 및 기타

- 권명아, 「모성신화와 가족주의, 그 파시즘적 형식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제1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9.
- 김미라, 「멜로드라마 <밀회>의 코드 파괴(code-breaking)와 그 함의」, 『한국극예술 연구』 제4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 김은성, 「올해 함께출산율 1명 미만」『아시아 투데이』, 2018.7.25.(<http://www.asiatoday.co.kr/print.php?key=20180725010014656>, 2018.07.27.검색.)
- 김현숙·김수진, 「영화 속의 모성, 영화 밖의 모성」, 『사회와 역사』 제52집, 한국사

회사학회, 1997.

김환희·이소운·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김훈순 김은영, 「모성과 낭만적 사랑의 담론경합: 멜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5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박선아, 「영화 <마더>에 나타난 수행적 모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55집, 한국영화학회, 2013.

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길항관계 고찰: <정사>와 <해피엔드>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2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이경아, 「모성에 대한 여성주의 재사유」, 『한국여성철학』 제11호, 한국여성철학회, 2009.

이장호, 「가정폭력·아동학대 매년 급증」, 『법률신문』, 2018.5.17.(<http://www.lawtimes.co.kr/Legal-News/Print-News?serial=143068>, 2018.07.25.검색.)

이희승, 「정주(停住)하는 모성의 기호들: <가족의 탄생>, <괴물>, <열혈남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허 윤, 「그리고 다시 어머니로: <거침없이 하이킥>, <좋지 아니한家>, <가족의 탄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중문화 속 가족담론」, 『여성이론』 16집,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7.

진은경·음영철, 「『엄마를 부탁해』와 <피에타>에 나타난 모성의 양가성 연구」, 『통일인문학』 제5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황진미, 「마더로 성장하다」, 『한겨레21』, 제1203호, 2018.3.16.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054.html](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054.html), 2018.07.15.검색.)

홍지아,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체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제23권 6호, 한국방송학회, 2009.

\_\_\_\_\_,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현상과 인식』 제38권 1/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Vavrus, M., "Domesticating Patriarchy: Hegemonic Masculinity and Television's 'Mr. Mom'",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Vol.19 No.3, Routledge, 2002.

## Abstract

## Expanding and Rethinking “Motherhood”

– Focused on the TV Drama &lt;Mother&gt;

Kim Mira

In the patriarchal society, the media has predominantly depicted motherhood as a feminine instinct and an absolute value, and that the ideal mother is a woman who sacrifices her own aspirations in society to nurture and provide emotional stability to her children and husband. In addition, females who have not conformed to the “normal family” structure defined by the patriarchy, such as single mothers, divorcees, and women who have refused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are portrayed as lacking “femininity.” This ideology has prevented women from entering the workforce and placed the responsibility of childcare solely on to women,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women from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However, with recent changes in traditional family structures and more women entering the workforce,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define the traditional meaning of “motherhood” in line with societal chang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mployed narrative analysis to find answers on the definition of motherhood, focusing on the critically acclaimed TV drama series <Mother>, which uses the issue of child abuse to depict wholly different “acts of motherhood.” <Mother> has illustrated motherhood that transcends the traditional definition by portraying different types of mothers that includes non blood relations, including a single woman who becomes a mother after she rescues and adopts a child endangered by abuse from her mother and live-in boyfriend, and a woman who adopts three girls and raises them as her own. In addition, the drama series did not employ a binary depiction of “good mother” and “bad mother” but focused on the

realities and suffering of female characters, such as a mother who becomes a murderer due to her husband's abuse and is forced to relinquish care of her child, and a woman who becomes a mother at a young age only to be abandoned by the father of her child then meets another man who abuses her daughter which she ignores due to fear of being abandoned again. The drama also challenges the traditional myth of "motherhood" that obligates the mother to sacrifice herself unconditionally. Moreover, the strong solidarity of mothers depicted in the single mom who rescues and adopts an eight year old child in danger and the women who support her, expanded the narrow definition of "motherhood", which had been limited to family, and includes nurture, care, and relationship. This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redefining the meaning of motherhood and a "motherhood" consensus around the current social issues on child abuse and low birth rates.

Key Words: Feminism, Ideology of Motherhood, Narrative Analysis, TV Drama Series

접 수 일: 2018년 7월 31일

심사기간: 2018년 8월 11일 - 8월 25일

게재결정: 2018년 9월 7일